

“글쓰기는 존재 이유이자 삶의 원동력”

한승원 작가 등단 55주년 맞아 자서전 ‘산돌키우기’ 발간 속명적 글쓰기에 대한 단상...작가의 지난 인생 오롯이 담겨 딸 한강 작가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글을 쓰는 한 삶이 있고, 살아 있는 한 글을 쓸 것이다.”
한승원 작가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꼭 그렇게 말한다. 글을 쓰는 자체가 삶의 원동력이자 존재 이유라는 의미다. 어쩌면 한 생을 모두 바쳐 이야기를 쓰고 이야기로 구원을 받은 작가만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이다.

소설가 한승원을 가리키는 수사는 많다.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현대문학상과 이상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우리시대의 거목 등 대부분 글쓰기 장인의 삶을 살아온 이에게 붙여지는 현사가 주를 이룬다.

작가 한승원이 최근 작가로서 단 한권일 수밖에 없는 자서전을 펴냈다. 올해로 등단 55주년을 맞아 발간한 ‘산돌 키우기’ (문학동네)는 구도자와도 같은 글을 써왔던 작가의 지난 인생을 오롯이 담고 있다.

현재 작가는 고향인 장흥 해산도굴에 머물며 여전히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자는 최근 한 소설가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일 년에 한두 차례 통화를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가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기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올해 우리나라로 85세라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다. 그럼에도 글에 대한 열망은 여느 문학청년에 비해 바 아니었다. 여전히 그는 소설의 힘, 아니 이야기의 힘을 믿는 영원한 현역 작가였다.

“이번 자서전을 관통하는 것은 이야기의 힘이다. 이야기의 힘이 나를 있게 했고 그것이 나를 견설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저술자가 그랬듯 내가 이야기를 통해 삶의 빛을 얻었고 순전히 이야기 힘으로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작가는 ‘술집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설화 속 ‘고려장’ 이야기를 예로 들며 어머니가 돌아갈 아들을 위해 산길 곳곳마다 술집을 뿌려 놓는 심정을 빗댄다.

“내 삶을 정리하는 한편 후배들에게 술집을 뿌려주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는 말이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한 작가는 두 작가(한강·한규호)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번 책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글을 쓰면서도 한편으로 문단의 선배 작가로 후배 작가들을 위한 마음도 담았다.

“나”라는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구에게 어떤 호혜를 입으며 성장했는지 말하고 싶었다. 또한 언제 무슨 상처를 입고 그것이 어떤 흉터와 트라우마, 다시 말해 어떤 무늬와 울어들어 이어졌는지도 말이다. 결국은 그것들이 내 사상과



삶의 역정을 어떻게 굴절시켰고, 지금은 어떤 자세로 또 외계로의 먼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진술하고자 한다.”

자서전에는 태동 이야기부터 할아버지와 관계 등도 담겨 있다. 현실적인 아버지와 대비되는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작가에게 이야기와 글의 신비를 알려주었다.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지혜와 통찰이 담긴 도깨비 이야기, 여유 이야기 등은 ‘유산’이라는 말로도 집약될 수 있다.

작가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특히 글로벌화 돼가는 자본주의 양태에 대한

일침은 적잖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그는 “많은 이들이 부동산으로 힘들어 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탐욕과 허영이 빛을 결과”라며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를 정의라고 정당화하는데, 사실은 많이 가진 자들의 탐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의선사가 지은 일지암이라는 암자의 뜻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뱀새는 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있어도 편하다’는 뜻에서 일지암(一枝庵)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고 덧붙혔다.

아울러 작가는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와 진리를 강조했다. 배우고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마지막에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이념이나 정의를 위해 글을 쓰지 말고 진리를 위해 써야 한다. 정의는 불의를 이기지만 반드시 적을 만든다. 백 사람 천 사람의 친구보다 한 사람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이다. 그 어떠한 정의도 진리를 이길 수 없다. 정의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 참된 평화를 만드는 것은 진리다.”

이처럼 자서전에는 작가로, 아버지로, 선배로,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후세대에겐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살아내며 쓰고, 쓰면서 살아낸 이야기는 그의 고향 장흥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반짝이며 신비롭다.

그의 딸 작가 한강은 추천사에서 “반짝이는 석영 같은 이 페이지들 사이를 서성이고 미끄러지며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얼마나 착박한 흙을 밟고 그가 기어오른 꽃을 꽃피웠는지. 그걸 가능하게 한 글쓰기가 그의 종교였음을. 그토록 작고 부드러운 이해의 순간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가무형문화재 김양남 명창 ‘적벽가’ 완창 무대 갖는다

8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국가무형문화재 ‘적벽가’ 이수자이자 40년 넘게 소리 길을 걸어온 김양남(사진) 명창이 ‘적벽가’ 완창 공연이 8일 오후 5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김양남 명창의 동편제 판소리 박봉술제 ‘적벽가’ 완창 공연이 8일 오후 5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적벽가’는 중국 고전소설 ‘삼국지연의’ 가운데 ‘적벽강 싸움’에 근간을 두고 있다. 고음 영역이 많고 풍부한 성량이 필요해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김 명창이 부를 박봉술제 ‘적벽가’는 빠른 장단에 웅장하고 씩씩한 호령조를 많이 사용하는 동편제 50명 조대. 관람이 어려울 경우 유튜브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통해서도 공연을 볼 수 있다. 문의 062-350-455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학으로 맺은 ‘사제의 인연’ 소설로 꽃피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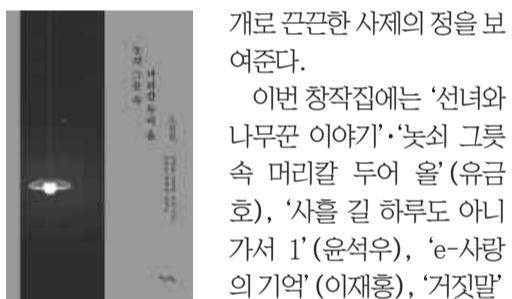
유금호 작가, 제자들과 소설집 ‘늦쇠 그릇 속 머리칼 두어 올’ 출간

고흥 출신 유금호 작가(목포대 국문과 명예교수)의 팔손을 맞아 유 작가와 제자들이 함께 소설집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채희운·윤석우·이재홍·김경희·이진 작가 그리고 은사인 유금호 작가의 소설을 모은 ‘늦쇠 그릇 속 머리칼 두어 올’ (북치는 마을)이 그것.

이들은 오래 전 목포대 국문과 대학원에서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으며 함께 문학의 길을 걸어왔다.

대학원에서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 논문을 상재한 경우는 많지만 소설을 함께 엮어낸 경우는 흔치 않아서, 무엇보다 이번 작품집 발간의 의미가 깊다. 이들은 지난 2010년에도 공동 소설집 ‘내 친구 장씨이야기’를 펴낸 바 있어 소설과 창작을 매



개로 끈끈한 사제의 정을 보여준다.
이번 창작집에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늦쇠 그릇 속 머리칼 두어 올’ (유금호), ‘사흘 길 하루도 아니 가서 1’ (윤석우), ‘e-사랑의 기억’ (이재홍), ‘거짓말’ (김경희), ‘코로나 시대의 싱글 라이프’ (이진) 등이 실려 있다. 유금호 작가가 두 편의 소설을, 제자들은 각각 한편의 소설을 제출해 창작집을 엮었다.

특히 제자들은 작품집을 상재하는 것이 스승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지만, 함께 소설 창작이라는 공통의 길을 걸어가는 데 의미를 뒀다고 한다.

채희운 작가는 “유금호 선생님은 50년 소설가의 긴 여정을 통해, 어찌어찌 우리들과 사제의 인연

을 맺게 되었고, 한 번 맺은 인연에 대한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평생을 통한 선생님의 학문의 깊이와 진중한 인격을 통해 불립문자(不立文字)의 가르침으로 이제 각자의 터전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만든 이 작은 소설집이 선생님에게 작은 의미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유금호 작가는 공주시대 국문과와 고려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하늘을 색칠하라’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한국작가교수회’를 창립해 초대·2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기관지 ‘소설시대’를 발간했다.

장편 ‘소설 열하일기’와 ‘내 사랑 풍장’, ‘만적 1, 2부’ 등과 창작집 ‘허공 중에 배꽃 이파리 하나’, ‘마리오네트, 느린 하늘로 날다’ 등을 펴냈으며 제1회 만우 박영준 문학상, 제3회 한송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Herstory’ 기획전시 공모전 광주여성가족재단, 26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 김미경·이하 여성재단)은 26일까지 제4회 Herstory 기획전시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Herstory’ 기획전시 공모전은 여성주의와 성평등 인식 확산 및 가족과 함께하는 전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여성재단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이번 공모전은 시각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며 성평등·여성주의·가족·오월여성 관련 기획을 우대한다. 공모전의 총상금은 1500만원으로 허스토리상(1팀) 수상자에게는 상금 600만원, 최우수상(1팀)은 상금 500만원, 우수상(1팀)에게는 상금 4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최종 선정팀은 4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팀의 전시는 오는 5월부터 11월에 광주여성전시장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문의 062-670-05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50~60대 신중년 문화예술교육 광주문화재단, 운영 단체 모집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은 50~60대 신중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할 단체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2021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기획 공모’는 3개 운영단체를 선정해 단체별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획 프로그램이었던 ‘경자씨와 재봉틀’을 일상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모로 변경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50~60대 여성으로 한정했지만 올해는 50~60대 여성·남성·부부로 확장했다. 지원단체는 50~60대 여성·남성·부부 등 사업유형 중에서 1개를 선택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9일 오후5시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전예약 필수. 문의 062-670-576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첨단 돌출 감자탕 산포점</p> <p>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p> <p>☎ 061)332-6108</p>	<p>행정심판전문행정사 행정법인 맥 행정법률사무소</p> <p>북구 유동 41-6번지 행정사 김유승</p> <p>☎ 062)523-5885, 010-5665-0150</p>	<p>평강안마지압원</p> <p>북구 임동 191-13 서림초등학교 후문 앞 만성피로 및 각종 통증관리 근육통, 3차 신경통, 요통, 관절염, 좌골 신경통 국가공인안마센터</p> <p>☎ 062)527-6664, 010-2645-6664</p>	<p>문화결혼상담소</p>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p> <p>☎ 062)529-0315, 010-3606-5632</p>
<p>효원재가복지센터</p> <p>광주 북구 운암동 91-2, 벽산블루밍 307동 앞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족같은 마음으로 보살펴드립니다. 신체, 인지, 정서활동,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 함께 하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모집합니다</p> <p>☎ 062)449-8627, 010-8627-5604</p>	<p>써니헤어샵가발</p> <p>나주시 성북동 4거리 삼성디지털프라자 옆 최신식 두피 케어 전문 컷트, 파마, 염색, 탈모관리, 히피펌 전문</p> <p>전화예약 ☎ 010-3996-0489</p>	<p>대신청소전문기업</p> <p>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학교청소, 공장청소, 업소청소, 외벽청소 현장청소, 준공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이사청소, 해충방제</p> <p>☎ 062)526-1133, 010-6522-1524</p>	<p>새희망 직업소개소</p> <p>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남·여 인력 향시모집</p> <p>☎ 062)531-5511, 010-6522-1524</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필스제화</p>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리다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p> <p>☎ 010-4755-9294</p>	<p>인철(仁喆)익스프레스</p>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p> <p>☎ 062)572-2323, 010-9509-4422</p>	<p>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 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p> <p>☎ 062)526-5475, 010-8621-5959</p>
<p>고전방</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남도철학원</p> <p>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p> <p>☎ 062)522-9653, 010-8645-2254</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법무사 이영석사무소</p> <p>동구 범실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업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행사, 고소장, 항고장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인찰기타법률상담</p> <p>☎ 062)226-7220, 010-3666-7220</p>
<p>드림케어슬루션</p> <p>동구 금남로 161-11 금오빌딩 3층 의료기기도·소매 온·냉 알칼리 이온수기 5분도실(황미쌀) 즉석 도정기</p> <p>☎ 010-3118-5679</p>	<p>초대화랑</p> <p>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박당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p> <p>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